

세계 최초 '비행기 안 타고 세계일주' 성공한 남성

덴마크 출신의 여행자 토르비에른 페데르센이 세계 최초로 비행기 없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방문하는데 성공했다.

2013년 10월 당시 운송·물류 회사에서 일했던 페데르센(44)은 비행기를 타지 않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방문한 사람이 '아직' 없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그는 곧바로 가방을 꾸리고 여행을 시작했다.

당시 그는 여행 기간을 약 4년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여행은 2023년 5월 23일에서야 끝이 났다. 그는 이날 203개 국가 목록 중 마지막 국가인 몰디브에 도착하며 세계 최초의 기록을 작성했다. 그가 지난 약 10년간 이동한 거리는 약 35만 9,000km에 달하며, 각 나라에서 최소 24시간



▲ 세계 최초 '비행기 안 타고 세계일주'에 성공한 덴마크의 페데르센이 기차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dailymail.co.uk

이상을 보냈다.

가장 오랫동안 탄 버스는 브라질에서의 '54시간짜리' 버스였다. 가장 오랫동안 탄 기차는 러시아에서 탄 '5일짜리 기차'였다. 전 세계 203개국을 이동하면서 351대의 버스와 158대의 기차를 탔고, 33대의 보트, 9대의 트럭, 37대의 컨테이너선, 그리고 마차 1대와 경차 1대를 탑승했다. 오토바이와 택시, 지하철 미니버스, 트램의 탑승 횟수는 셀 수 없이 많았다.

모든 국가에 입국하기 위해 총 10개의 여권을 이용했다. 여행 비용은 덴마크의 에너지 회사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지원받았다.

아마존 '비행기 추락' 실종 아동 4명 40일 만에 기적 생환

비행 중 아마존 정글에 추락한 어린이 3명과 아기 1명이 40일 만에 무사히 구조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달 1일로 당시 조종사를 포함한 어른 3명과 어린이 4명이 탑승한 소형 비행기가 콜롬비아 남부 아마존 정글인 솔라노 마을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엄마를 포함한 성인 3명은 모두 숨진 채 발견됐으나 동승한 어린이들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이에 콜롬비아 당국은 추락지점을 대대적으로 수색해 쫓병과 먹다 남은 과일 조각 등을 발견하기도 했으나 아이들의 행방은 찾을 수 없었다. 특히 아마존 밀림은 사



▲ 실종 40일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아이들을 구조대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사진=콜롬비아 국군 공보실

고 당시 폭우와 각종 야생동물과 유해 동식물이 넘쳐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다행히 실종된 어린이들은 거친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남아 있었다. 믿기 힘든 40일 만의 기적이 일어난 셈으로 실종된 어린이들은 레슬리 무쿠투이(13), 솔레이니 무쿠투이(9), 티엔 노리엘 로노케 무쿠투이(4), 크리스틴 베리만

라노케 무쿠투이(1)로 확인됐다.

구조된 아이들은 영양실조 증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식 도중 '되살아난' 70대 여성



▲ 장례식 도중 되살아난 벨라 몬토야를 가족들이 부축하고 있다. 사진=lasikarota.com

70대의 한 에콰도르 여성이 관에서 '되살아'났다. 의료진의 잘못된 사망 판정이 멸망한 사람을 진짜 사망에 이르게 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었다.

지난 9일 에콰도르 로스리오스주의 한 장례식장에서는 벨라 몬토야(76·여)의 장례식이 열렸다.

이 여성은 전날 오전 9시경 급성 뇌졸중 증상을 보여 병원에 실려왔으나, 증상이 악화해 결국 3시간 여 만인 낮 12시경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후 유가족은 장례 준비를 시작했다. 몬토야의 시신은 곧 관으로 옮겨졌다. 유가족들이 장례식장에 고인의 시신을 모신 채 장례 준비를 하던 무렵, 희미한 노크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소리를 낸 사람은 다른 아님 관 속에 있던 고인이었다. 유가족이 관 뚜껑을 열었을 때, 사망 판정을 받은 노인이 숨을 몰아쉬며 관을 두드리고 있었다. 이 모습을 직접 본 몬토야의 아들은 "어머니가 왼손으로 힘겹게 관을 치고 있었다. 또 눈을 뜨고 입을 열어 숨을 쉬려고 애쓰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잠시 후 구조대원이 도착해 몬토야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여성은 집중치료실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yung Sook Yu, D.D.S

여름방학 스페셜 교정치료!

\$3000
부터
(무문상담)

<개원 20주년 기념 스페셜>

최신형
3DCT Pano Can Ceph
설치 기념

Free
임플란트 상담

크라운
(PFM)
\$500

잇몸치료
\$200부터

틀니
\$1500

DR. Kyung Sook Yu
USC 치대 졸업

각종 보험 PPO / 메디컬 환영

1370 S. Beach Blvd. #E La Habra, CA 90631

T.562.694.5850 월 - 목 9am - 6pm

Imperial Hwy
S. Beach
● 유경숙 치과
예당식당